

CHAPTER **III**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2. 국토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95% 이상	S
90% 이상 ~ 95% 미만	A
85% 이상 ~ 90% 미만	B
80% 이상 ~ 85% 미만	C
80% 미만	D

[평가등급 현황]

① 연구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1. 연구과정 관리	1-1-1. 연구기획	<input type="checkbox"/> 연구 기획의 우수성	A
		<input type="checkbox"/> 정책수요자(정부, 국회, 국민 등)의 연구 기획 참여를 위한 노력과 실적	A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우수성(기본/일반/협동)	A
	1-1-2. 연구 수행 및 정보공유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기본/일반 수시/협동)	A
		<input type="checkbox"/>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A
	1-1-3. 연구결과 환류 및 성과 확산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B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및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C
		<input type="checkbox"/>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A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S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기초·정책연구보고서 우수성	B
	1-2-2. 협동연구 보고서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B
1-3. 국가정책 기여도	1-3-1.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B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1-3-2.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3-3. 국정과제 및 간급연구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S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A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의 간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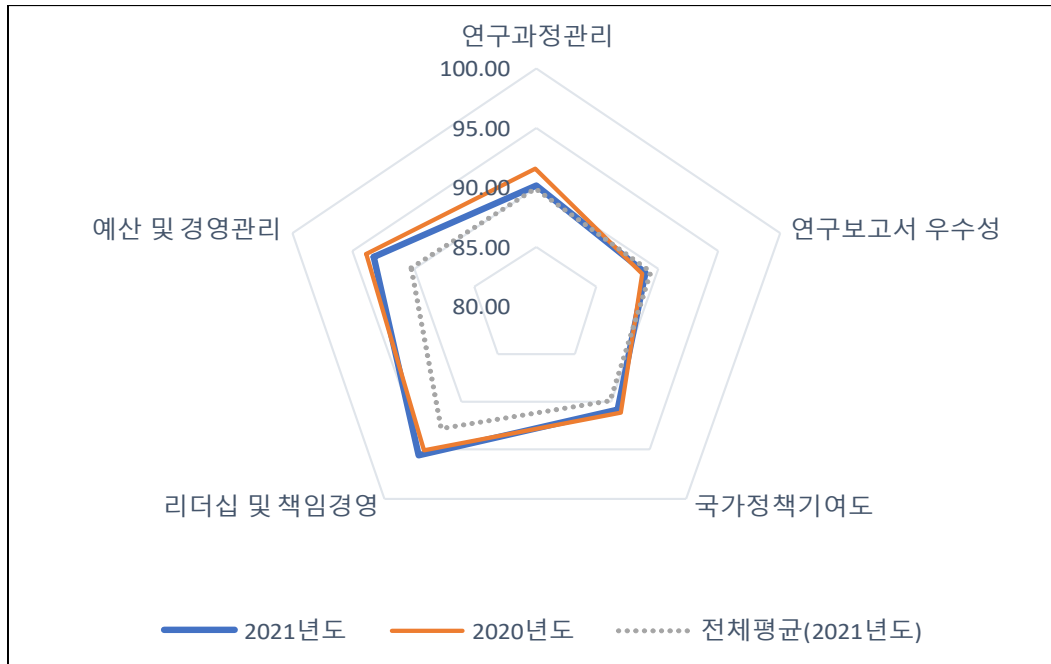
②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S
		<input type="checkbox"/>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A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A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A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A
		<input type="checkbox"/> 복무관리의 적정성	S
2-2. 예산 및 경영관리	2-2-1. 예산 운용 및 결산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의 적정성	C
	2-2-2. 사회적 가치	<input type="checkbox"/>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S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A
		<input type="checkbox"/>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 효과의 정도	A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B
		<input type="checkbox"/>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및 채용 노력	S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및 채용 노력	S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A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등 구매실적	S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A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내용)	등급
	2-2-3. 감사(평가)결과 개선 및 보안관리 정도	□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A
□ 유관 정부부처 등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S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실적 및 환류		S	
□ 연구기관 보안관리 및 경영정보공시		S	

총 평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종합의견

[연구 분야]

- 연구 기획과정에서 다양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정책연구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연구(실무) 협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연구과제 발굴과 협동연구 선정 및 수행에 있어 정책고객의 의견을 중시하고 외부기관과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연구 기획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업, 정부정책 과제와 기관 고유 연구 사이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제안서부터 연구심의위원회 결과,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관리통합 시스템이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다양한 연구원 내의 소통 능력이 긍정적임. 2020년도에 연구윤리 위반사례 1건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에 연구윤리 자체점검 강화에 주력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보임.
-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사업을 정례화하여 기획,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하나, 연구원 1인당 논문 게재실적이 저조한 편임.

- 국가 사회적인 현안을 발굴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노력이 법안이나 시행령 또는 지침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 집행이 지역의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현지의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소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 빈집정비 등의 정책과제는 지방의 특성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별 정책수요자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의 활용도가 널리 확산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정책의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도시재쟁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 수요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량평가와 함께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정성평가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국·공유지연구센터는 평가조정 업무로서 추진되는 사업의 방향성 및 목표의 설정, 이에 따른 사업영역의 도출 등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국공유지의 활용 가치라는 측면에서 사업부문 구성체계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서민주거안정 사업,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사업 등의 영역구분과, 부지활용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 등 국민의 주거복지, 생활복지, 국가 경제에 부응하는 다양한 목적의 가치설정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경영 분야]

- 주요한 대외현안을 실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기관장 참여도 적극적이거나 이해관계자의 소통 과정을 통한 니즈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감이 높은 주거정책 및 탄소중립도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다층적 협업네트워크를 통해 연구를 추진하고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구성원들의 교육역량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과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관장은 2021년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기법 및 내·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기관의 당면현안과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2021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18개 실천과제별 성과목표를 100% 달성함. 임팩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
-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기관 당면현안 및 대응전략을 도출하고, 경영목표에 따라 세부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함. 유연 근무제에 대한 직원 만족도 및 니즈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인 측면 역시 긍정적임. 다만 전 직원의 교육참여 및 자기개발 독려 방안 마련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유연한 복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제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기는 하나 좀더 도전적인 여성관리자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높음.
- 지도멘토와 감성멘토의 지정 운영, 인턴 개인별 맞춤 진로 및 애로사항 상담 등 인턴에 대한 멘토링,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구성하고 연구직과 실무진을 평가자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개선과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법인카드(복지포인트 포함)에서 발생한 포인트 500만원을 위기가정 및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곳에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실적이 우수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기준을 달성하고 우대조치를 통해 연구직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 비상임감사를 제외한 3인의 감사 전문인력 구성과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한 점은 우수함.
- 감사교육에 있어서 전반적 참여도 제고와 내용의 다각화 측면의 노력이 필요함.

1-1. 연구과정 관리

1-1-1. 연구 기획

■ 연구기획의 우수성

〈우수한 점〉

- PESTEL 분석, 200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연구 수요조사, 메가트렌드 분석, 포럼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목표와 핵심 현안 이슈 설정을 하고 있음.
- 정책연구(실무)위원회 운영(총23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적절한 과제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인구감소 대응, 지역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환경, 주거환경 및 복지,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이라는 7대 핵심 현안 이슈 확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과정이 체계적,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음.
- 국토정책 분야별 현안 이슈 진단 및 중점 연구 방향설정을 위해 미래국토리더스포럼을 11회 개최한 점이 우수함.
- 5개 기본과제 유형별로 차별화된 기획 및 선정 절차를 적용하여 전략적인 연구과제를 기획·발굴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 일반국민 대상 연구과제 발굴 활동이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산업현장을 비롯해 현장의 시급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미래국토리더스포럼 프랑스 사례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실무선에서 추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이나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함.

- 외국의 의미있는 정책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과 현황 파악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선점들을 자체평가를 통해서 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자(정부, 국회, 국민 등)의 연구 기획 참여를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전년도에 비해 더 자주 개최(2020년 2회→2021년 4회)하고, 국토부, 환경부, 대도시권역교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 담당자와 정책협의를 수행한 점이 우수함.
- 국회 및 지방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국토 관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점이 우수함.
- 페이스북, 유튜브, 연구 제안 공모 등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 대상 관심 주제를 발굴하려 노력한 점과 우체통 설치, EBS 팽수 활용은 참신한 접근으로 판단됨.

〈미흡한 점〉

- 국내 연구진에 비해 외국 연구진이나 실무진과의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음.
- 지방의 의견수렴이 경기와 제주의 수탁과제 수행 성과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국토 관련 연구제목과 연구내용을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일반인들로부터 국토 관련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의견들을 수집하여 정형화된 구체적 과제발굴 방법을 통해 과제발굴에 활용하면 성과가 있을 것임.
- 지방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한 지역민과의 세미나, 지역 의회와의 소통을 균형발전 성과와 연결하여 가시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과제 발굴, 선정을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발굴 · 선정의 우수성(기본/일반/협동)

<우수한 점>

- 40개 기본/일반과제 중 정책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의 비중이 70%로 바람직함.
- 중점연구과제 선정이 매우 합리적,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
- 중점연구과제를 모두 협동연구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선정한 점이 우수함.
- 협동연구과제 발굴과 수행에 도움을 얻기 위해 외부기관 특강, 연구원 세미나, 내부 공개 토론회 등을 61회 수행한 점이 우수함.
- 지방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의회, 지역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 국토 공간 이용 변화와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협업 그리고 정부부처, 산업체, 지자체 등과의 자문이 과제기획 단계에서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과제(20개)의 비중이 기본연구의 70%가량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수행과정에서 행정·예산·협의를 등의 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정책과제의 사업계획 반영과 함께 기관 고유의 독자적 연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협동과제 협력기관 관련, 학계를 넘어서 업계와 국제연구기관 등 외연 확대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함.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의 협업회의 뿐 아니라 국토 개발과 연결된 산업체 및 관련 학문 연구자들과의 다양한 포럼 운영을 통한 자문, 의견수렴 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2. 연구 수행 및 정보공유

■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정보공유의 적정성(기본/일반/수시/협동)

〈우수한 점〉

- 연구 기획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구관리 통합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음. 과제의 제안서부터 연구심의위원회 결과,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실시간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 관리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음. 이는 타 연구기관 대비 우수한 시스템으로 판단됨.
- 연구원 내의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전문 연구 모임 등의 활용이 장점임. 특히 감염병 도시정책 연구 모임은 시의적절한 워킹페이퍼 발행 및 자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모임은 행정직과 연구직의 협동모임으로써 발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시연구 과제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되, 기본연구과제 수행체계의 엄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가 관리되고 있음.
- 연구과제의 정책영향력 제고를 위해 '정책영향력 평가제도'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정책연구수행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화하는데 있음을 인식시켜 연구자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오히려 정책화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자율적 지표로서, 의무적으로 본 건에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 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가 기획,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협동연구 플랫폼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 기본/일반/수시과제 모두 연구심의회 절차를 거치고, 외부전문가 평가를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질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흡한 점〉

- 수시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수시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원의 참여를 위해서 오픈형의 연구자 선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시과제 선정 시 적절하게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적절함의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연구자의 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수 리뷰 사례를 공유하거나 리뷰의 적절한 양식이나 분량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외부연구자의 리뷰에 대한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의 의견도 외부연구자 풀 관리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 연구보고서 품질관리TF, 최종보고서 평가 시, 외부전문가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ex. 1주일 or 2주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수시연구의 연구자 선정 과정을 체계화하여 특정인에게 연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다양한 연구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공적인 협동연구 플랫폼의 사례를 공유하여 가장 적절한 협력 연구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거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협동연구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윤리지침 개정 등 연구윤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착수, 중간, 최종연구심의회, 최종보고서 집필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기준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연구과제 자체점검단에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객관성과 엄정성,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점은 적절함.
-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연구윤리교육 이수토록 강화하였으며, 연구윤리교육 콘텐츠 사전 배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연구윤리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윤리 자체점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실학술단체 DB확인, 출장 신청 시 부실학회 자가점검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예방을 제도화하였고 참여 후에는 연구윤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 코너를 마련하였고, 실제 1건의 표절 의혹 제보가 있었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실적이 있음.
- 2020년도에 연구윤리 위반사례 1건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에 연구윤리 자체점검 강화에 주력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연구윤리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짐.

<미흡한 점>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점검이나 적발에는 적절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연구 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구윤리 자체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한 엄정한 연구윤리 추구는 긍정적이나,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구윤리 문화 확산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표절 등의 마이크로한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연구아이디어 도용 등과 같은 측면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에도 노력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윤리는 연구 과정 전반(연구 기획부터 연구 산출물까지)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기에 때문에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있는 연구와 윤리적인 결과물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협동연구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주요쟁점 사안을 공유하는 것도 협동연구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윤리검증을 위해 30일간 연구기획평가팀이 검증을 실시하고 무결점 보고서만 발간 절차를 추진하는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연구수행 기간은 줄어드는 것이므로, 연구질 저하 및 연구원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동시에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3. 연구결과 환류 및 성과 확산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연구성과물 배포실적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확산 수단의 다양화 노력이 매우 우수함.
- 특히, EBS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한 점, 국토TV 청년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 점,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목의 선정으로 대중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 초점을 둔 점이 훌륭함.
- ‘아름다운 우리국토 사진 공모전’이나 ‘국토스토리 영상 공모전’ 등,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토의 아름다운 부분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보게 하는 공모전들을 통해 ‘긍정적 콘텐츠’의 힘을 느끼게 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함.
- 정부 유관부처와 국내·외 기관, 국회 등과의 협력이 활발하며, 국토 균형발전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이 활발함.
- 소멸 위기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도 협력사업, 공동세미나,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미흡한 점〉

- 연구실적의 온라인 배포를 유튜브, 페이스북 외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등 좋은 연구 결과들이 실제 국민의 삶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업 주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램.
- 선진국의 공원 사례 및 연구 등을 참고하여 국민의 힐링과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의 형태 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이어질 수 있는 지향점을 권장함.
- 국책연구기관의 단행본 출판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무료 배포를 통해 국민의 정보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건의함.
-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공공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이 실패로 평가받은 사례를 볼 수 있고,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단행본을 2권 발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를 건의함.

■ 공공데이터 관리(NKIS 포함) 및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우수한 점〉

- NKIS 등록 비율 100%로 잘 준수하였음.
-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 건수도 향상되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미흡한 점〉

-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전년도보다 약간 개선되었으나,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위탁/공동연구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기본연구, 수탁연구, 육성 및 축진이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업무별로는 위탁/공동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본연구, 육성 및 축진, 수탁연구, 정보제공 순임.
- 전체평균 대비 만족도 분석 결과, 전체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기본연구, 정보제공, 육성 및 축진의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공감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낮음. 특히 '편리성'에서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가장 낮음.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정보제공에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음.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음.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과 협력 위해 노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업무/연구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물' 항목의 점수가 낮음.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제공·교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공유 및 성과 확산 위해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음.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노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를 수행할 적절한 전문 인력과 관련 조직 갖추' 항목의 점수가 낮음. 정보제공의 경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의 의견 및 건의사항 경청하고자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음. 육성 및 촉진의 경우 '포럼 및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를 해당 분야 전문가 구성'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지속적인 고객관계 형성·유지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음.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보제공'에서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홈페이지, 간행물 등에 정확하게 안내되는 것이 중요하며, 문의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반복되는 문의나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개선 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1-2. 연구보고서 우수성

1-2-1.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국토연구원의 기초/정책 연구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잘 기획된 것으로 평가됨. 연구주제의 시의성도 높고, 정부정책과도 잘 연계되며, 지역주민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제를 설정하는 등 연구 기획 측면에서의 우수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연구보고서의 가독성이 높음. 연구목적부터 분석결과 제시, 결론,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관성이 있으며, 그림이나 표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문장 구성도 잘 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 하나의 연구보고서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한 보고서가 상당수 있음. 또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방법론(지표 측정 방법 등)을 활용한 연구도 적지 않음.

<미흡한 점>

- 전체적으로 연구의 활용성은 높은 반면, 정책 추진절차 및 체계, 실행 수단,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및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제안된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연구보고서가 많음.
-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지역별, 정책 타깃별로 세분된 정책제안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정책 제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다소 취약함.
- 논리적 전개가 깔끔한 보고서가 많지만, 분석 내용 및 결과와 결론 및 정책 대안이 잘 연계되지 않는 보고서도 상당수 있음. 사례분석이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거나 분석 내용과는 거리가 먼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이 연구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 정책 전환에 따른 변화상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계획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고, 사례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연구보고서도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획력이 우수하나, 이에 비해 실제 연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 기획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 관리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준다면 연구보고서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 대체로 논거를 잘 갖추고 있어 설득력이 있으나, 구체성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가 대부분 현장의 다양한 이해가 부딪치는 영역인 만큼,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추진체계 및 실행전략을 제시한다면 더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2-2. 협동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우수한 점〉

- 국토연구원의 협동연구보고서는 연구 기획 측면에서 시의적절성이 높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음. 그린뉴딜과 스마트 뉴딜을 포괄한 에코스마트시티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점,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불평등, 민생과 직접 연결된 주거급여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한 점 등이 우수함.
- 에코스마트시티 모델의 해외진출을 모색했다는 점,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참신한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 주거급여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등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미흡한 점〉

- 보고서마다 다소간의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융복합적 협동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연구보고서가 있음. 참여 연구기관이 맡아 집필한 각 장을 단순 취합 형태로 묶어서 분량은 방대하지만, 장 간의 유기성이나 내용의 체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보고서가 다수임. 이에 따라 보고서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움. 전체적으로 협동연구의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임.
- 정책제안이 대부분 추상적, 원론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도 잘 드러나지 않음.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사항(참여 주체, 추진체계, 법/제도적 개선사항, 행재정적 지원체계 등)이 상이할텐데,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드러나지 않음.
- 타 기관의 협동연구 보고서와 비교할 때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분석의 체계나 구성의 짜임새가 크게 부족한 보고서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정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음. 평가된 협동연구 보고서 중 모범적인 과제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보고서가 다수임. 따라서 모범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원 차원에서 협동연구 과정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기를 건의함.
- 분석 내용과 정책제언 간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이 분석 내용과 잘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제언이 나와야 함.

1-3. 국가정책 기여도

1-3-1.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우수한 점>

-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 신속한 과제발굴과 연구를 추진함.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함.
-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노력함.
- 수탁과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지침 제정,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화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미흡한 점>

- 관련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책수요자 등과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부족함.
- 빈집정비,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개발 등은 특정 기관의 특정 쟁점만을 연구하여서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해야 집행이 가능함. 이에 정책대안 개발에서 소요 재원을 추계하여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함.
- 행정부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안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함.
- 특정 대안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정보 제공의 접근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조건과 상황 등 다양성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함. 특히 빈집정비 등의 과제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원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융합적 접근을 위한 협력 연구의 노력이 필요함.

- 소요 재원을 추계하여 제시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관련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접근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안 모색의 과정에서 지역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필요함.
-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분석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와 자료를 시계열로 축적 관리하는 DB 구축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2. 정책집행 기여도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우수한 점〉

- 자체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및 국민참여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함.
- 성과지표를 계량화하고 환류 과정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함.
- 도출된 대안의 내용이 정부 정책 발표에 반영되었고, 법령 개정과 국가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실효성이 높음.
- 데이터와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여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미흡한 점〉

- 성과지표가 결과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위한 수준이므로 수요자와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코로나19 확산의 시기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접촉을 전제로 집행되던 교육이나 세미나 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질적 성과목표를 관리하는 접근은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성이 부족함.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양적 지표 관리보다는 사업지구의 주민만족도 등 질적 지표체계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성과지표 개발에서 정책 이해관계자를 설계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접근이 필요함.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업지구의 주민만족도 등 질적 지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비접촉이 확산되고 장기화 될 상황에 대비하여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책 대상을 설계하여 정책 수요자에 대한 타겟팅된 조사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도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설립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사업의 수요자를 확인하여 집중화된 사업 운영의 노력이 필요함. 도시지역과 군 단위 농촌지역은 각각이 지니는 특성 및 성격이 상이한바, 획일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사업추진과 성과측정지표 개발이 필요함.

1-3-3.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 국정과제 수행 연구 실적과 성과

<우수한 점>

- 국정과제 수행 연구실적과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비연구 사업을 통해 14개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전체 206개 과제 중 197개 과제에 315억 원(97.3%), 연인원 1,186명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국제과제를 지원하는 연구와 비연구 사업을 통해 법/제도 제·개정 32건, 정책지원 135건, 민생지원 9건, 시범사업 추진 10건 등 총 186건의 성과를 창출함.
- 대부분의 연구과제와 사업들이 국토분야 국정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문제 원인 진단, 해결방안, 제도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대표과제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안' 연구의 경우 이슈화 되고 있는 메가시티 사업을 정책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국토기본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마련 등 법제화 및 제도화에 기여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대국민 홍보 채널을 대폭 강화한 것이 우수함.
-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포스트 코로나시대 다기능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개선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참여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 등을 통해 초광역 경제권 등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좀 더 근본적, 종합적, 포괄적 시각에서 지속성 있는 연구를 확대해주기 바람.

■ 연구과제의 정책 기여 관리 노력 정도

<우수한 점>

- 연구과제의 정책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성과 확산을 위해 당해 연도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관리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정책영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의 정책화에 기여한 연구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인력이 연구성과를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점도 우수함.
- 연구성과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노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방송사(EBS)와 협업하여 국토채널e를 생산하고 있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함.
- 연구과제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연구 전주기에 걸쳐 온·오프라인 수요조사 채널을 통하여 정책고객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연구관리시스템을 크게 개선하였고, 그 결과 수요응답형 과제로 기획된 과제 비율이 64.3%에 이르고 있음.

<미흡한 점>

- 연구기획단계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과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은 단순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획단계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통로를 다변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경품, 공모전 등)를 마련하면 좋겠음.

■ 연구기관의 긴급연구 수행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긴급연구 및 정부 현안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성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규칙을 개정하고 한시적 하부조직 및 전담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긴급한 정부현안을 수용하기 위해 수시과제와 비연구 과제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 균형발전, 탄소중립 및 디지털 트윈, 코로나 대응, 국공유지 및 민간투자 등 현안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 비율이 21.2%로 우수한 수준이며 수시연구사업비 배정액 비율도 100%에 달하는 등 수시연구를 통한 긴급연구의 수행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함.
- 긴급 및 정부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각종 TF 및 발간물을 신설·확대 하였고, 워킹페이퍼(49건), 국토정책 Brief(51건)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책제안을 수행한 결과 법률 개정, 정책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함.

〈미흡한 점〉

- 2021년은 LH사태 등 부동산 관련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가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긴급현안으로 부각되었는데 ‘국민주거안정 지원’ 분야에서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긴급 및 현안연구를 많이 수행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와의 소통 하에 주도적인 정책제안 및 정책대응 성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시연구과제 중 정부 현안과제의 비율을 좀 더 상향할 것을 고려하기 바람.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한 점〉

- 2021년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PESTEL 및 내·외부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SWOT 분석을 통해서 기관의 당면현안과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2021년도 경영목표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18개 실천과제별 성과목표를 100% 달성함.
- 이전 임기 3년을 마무리하는 성격을 갖는 2021년에는 ‘연구성과의 정책화 및 정부정책 지원 강화, 정책추진을 위한 공론화 및 연구성과 확산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계획한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기본연구과제 선정 시, 상향식(연구자 제안형), 원장지정형(외부 요구), 절충형(본부별로 자율적 결정) 방식을 활용하여, 기초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함.
-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부동산 가격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 그린뉴딜, 주거안정,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주요한 현안이 실천계획에 반영됨.
- 실천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자문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함.
- 임팩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
-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경영혁신의 경험 축적을 위해 ‘경영개선과제 전담반 백서’를 발간한 점이 돋보이며, 신진학자 지원을 위한 ‘국토서원’ 프로그램의 추진은 타 연구기관에서도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것임.

〈미흡한 점〉

-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천과제별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과제)달성률 측정'과 관련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잘 확인되지 않음.
- 연구환경 활성화를 위한 가치로써 활력과 신명을 강조했으나 실제 추진내용에는 그와 같은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성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소통 매체 및 경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대민 차원의 소통과 확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하청업체 관리, 건설노동자 안전 등 시의적으로 중요성을 확대해 가고 있는 사회적 쟁점들이 실천계획에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성과중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연구원의 산출물이 관련 부처의 정책 및 제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정도

〈우수한 점〉

- 종적/횡적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운영 강화, 협력적 리더십 구현을 위한 기관장-직원 간 소통체계 확대/다변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맞춤형 상시 소통체계 운영 확대라는 세 개의 소통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관구성원과의 소통을 시도함. 특히 55회에 달하는 정책개발간담회의 운영은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장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열린소리함, 원장대화방 등의 소통창구를 운영했으며 소통의 과정에서 115건에 달하는 구성원의 제안을 도출하고, 이 중 80%를 개선한 것은 전년 대비 제안 건수 및 개선 실적 모두 향상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온라인을 통한 해외 인력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

〈우수한 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정보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 각종 세미나, 간담회, 위원회, 기고, 강연, 인터뷰, 토론회/좌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188건이 넘는 다양한 대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탄소중립, 부동산 및 주거,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주요한 현안과 관련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 대국민 관심사가 높은 분야임을 고려할 때 미디어를 통한 공론화, 커뮤니케이션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활동의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있음.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큰 중앙언론을 통한 기고, 인터뷰 등의 활동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기관장 중점 추진사업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연구

〈우수한 점〉

- 기관장이 역점을 둔 사업을 선정하여 국토연구원 성과의 가시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사업성과를 수행과정과 성과확산으로 구체화한 점이 두드러지며 각 실천 과제별(사업수행과정 성과, 정책반영 및 공론화 성과)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계획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 기관장이 정부 토론회 참석 등 정책화 및 공론화 노력을 통해 법 개정 및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는 성과 측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두드러지며 계획 대비 성과가 100% 달성됨.

〈미흡한 점〉

- 사업수행과정에서 명시된 과제들의 성과와 사업성과지표에서 제시된 정책화기여도에 있는 과제들 간 연계성에 의문이 제기됨. 특히 사업수행과정에서 '정책제안'과 사업성과지표와 달성도 내 '정책화 기여도' 간의 차이는 기관이 의도한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장 중점추진사업의 성과측정 체계화를 유도할 것을 건의함. 기관장 중점추진사업 성과가 법률 제·개정인지, 아니면 정책화정도인지 각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를 기재한다면 다양한 측면으로 성과를 가시화하여 확산하고 홍보 및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기관장의 필요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은 필수이긴 하지만 중점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 개편이나 팀명 개편보다는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역량인 내부 인력충원 및 개편방안 등이 전년도(2020년도)에 비해 차별화된 점이나 전년 대비 인건비 및 사업비가 확충된바 등의 차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임.
- 성과확산측면에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연구의 최종 고객인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연구방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등을 고려한 주거정책 연구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람.

(2)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연구

〈우수한 점〉

- 중점추진사업 주제의 선정과정과 절차가 구체적이고, 국민과 연계된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 점과, 사업의 성과를 수행과정과 정책반영 및 공론화로 이분화하여 구체적인 성과지표들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 점이 우수함.
- 기관장이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을 통해 건물·수송 등 배출원 단위의 관리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 지역단위의 '탄소중립도시전략'을 법제화·정책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특히, 연구성과 확산 및 정책화를 위해 정부부처, 국회 등 정책자문, 공동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 등 다층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이 돋보임.

〈미흡한 점〉

- 탄소중립법의 경우 법안 추진주체가 환경부인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주요 추진 중앙부처인 환경부 등과 협력 및 네트워크 등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토연구원의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음. 장기적으로 다부처 사업이나 새로운 연구수요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성과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새로운 연구수요 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성과가 다면적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고, 성과를 마련하는 과정(연구보고서 작성, 간담회, 혹은 정책화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성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영상, 웹툰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듯하며,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연구의 최종 고객인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우수한 점〉

- 사업수행 과정과 구체적인 혁신성으로 구체화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계획 대비 달성도를 가시화하여 계획 대비 향상도를 알 수 있음.
- 국토연구원의 가장 핵심역량인 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훈련제도 고도화는 매우 필요한 사업임.
- 기관장이 직접 노동조합 대표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 형성을 선도한 점이 우수함.
- 교육 훈련제도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해 연초 경영개선과제 TF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구성원이 만족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낸 점이 우수함.
- 적립형 교육훈련제도 개편으로 본인 희망 시기에 교육훈련을 갈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 연구기관 내 교육훈련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19년 12월에 체결된 노사 협약에 따른 이행사항 도출 과정이 1.6개월가량 소요되는 등 단일사업 건에 대한 이행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우려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 성과지표들이 달성되면 직원역량이 이전보다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임. 예를 들어, 마일리지 적립제 등의 운영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임.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는 연구년을 통한 논문 등 게재 실적, 행정직의 경우 자격증이나 교육훈련(대학 혹은 민간 등)을 받은 실적을 제시하는바, 현재의 교육훈련제도는 선발자 및 제도시기 등 투입지표에 한정된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1-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PESTEL 분석, 빅데이터 분석, 국정과제 및 부처 업무계획 검토 등을 통해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고객 요구 수렴 및 구성원 의견을 고려하여 기관 당면현안과 대응 전략을 도출함.
- 경영목표에 따라 세부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구분하고 구체적 연계방안과 연계수단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수립함.
- 센터보다 작은 규모의 하부조직을 신설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함.
- 경영목표에 따라 부서별로 목표를 부여하고 설정된 성과에 대한 달성도를 MBO로 관리함.
- 조직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직원평가 대응 TF팀을 운영하여 조직성과를 관리함.
- 여러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무기명 온라인 의견제시 및 다수의 간담회 등 의사소통 활성화와 의견수렴 창구의 활용이 적절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우수인력 확보·관리 및 구성원 역량강화의 적정성

<우수한 점>

- 퇴직자 연구브랜드, 미래연구수요, 정부정책방향,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2030년도까지의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함.
- 신입직원 초임과 승진가산액 인상, 직장어린이집 개원 등 기존의 우수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 전 직원 공통 법정교육,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71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1인당 교육훈련비는 67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모든 직군에서 비용이 증가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의 연구성과 평가 비율이 70%이고,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배점기준 계량항목은 40%로 관리하고 있음.
- 업적평가제도가 직무 및 직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술지 게재 실적과 협동 및 융·복합연구 실적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신설 조직의 차별화된 업무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우수성 및 국가정책 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개선됨.

〈미흡한 점〉

- 미래 연구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세밀한 모델 개발을 통한 미래수급 예측 수준은 아님.
- 미래 필요한 인재를 연구환경 분석에 기초하여 예측하고 이를 중장기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미래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긴밀하게 구성한 체계성은 다소 부족함.
- 교육 참여 실적이 행정직의 경우 정량적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직의 자기개발 독려 방안 마련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설명요인을 고려한 회귀방정식 등을 활용하는 세밀한 계량적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미래인력 예측에 활용할 것을 건의함.
-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기초하여 미래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 인재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기관의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필요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의 목표, 중장기 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립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기관차원에서 모든 직원의 교육 참여 및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 장려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을 건의함.

■ 복무관리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외활동 10일 초과 사후 신고비율이 3.7%으로 개선됨.
- 자체 감사를 통한 근무 관련 모니터링이 작동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를 통해 대외활동 지연 신고 건에 대한 주의 처분 및 개선을 완료함.
- 연가저축제 활용 및 연차휴가 소진 독려를 통해 연차휴가 소진율 100% 실적을 달성함.
- 유연근무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원들 만족도 및 니즈를 탐색하고 분석한 측면이 긍정적임.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음.
- 안식년(연구연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과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2. 예산 및 경영관리

2-2-1. 예산 운용 및 결산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총인건비 규모 및 인상률, 결원인건비 등 평가기준을 모두 준수함.

■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평가 결과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 등의 편성 및 집행이 모두 적정하여 평가기준을 준수함.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의 적정성’ 평가 결과 예산과목 및 비목별 집행, 사업비 내 인건비성 경비 집행, 사업비 내 경상 경비성 비용 집행, 사업별 예산 집행률 및 부진 사유의 타당성 등의 평가기준은 모두 준수하였으나, 연구사업비에 있어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및 수시연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못함.

2-2-2. 사회적 가치

■ 일·가정 양립지원의 적정한 운영 정도

〈우수한 점〉

- 임신-출산-육아의 생애주기별 일·가정양립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1년 배우자 유산 조산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
- 유연근무제는 PC ON/OFF 방식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정한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휴직자에 대해서는 반기 단위로 복무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복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출산휴가제 및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제에는 사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정히 운용되고 있다고 확인함.
-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점〉

- 육아휴직자 15명에 대해 9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나 가족돌봄휴직 대체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있어 중장기 휴직 사용현황을 조기 파악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휴직제도의 사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대체인력 채용 노력이 부족함.
- 육아휴직은 분할사용 가능하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현행 법령이 현행화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됨.
- 직원 수가 많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여성 보건휴가 등의 실적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명문화하고, 중장기 휴직 사용현황은 조기에 파악하여 대체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용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 재배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에 신청자가 없었던 것을 개인 사유로만 보기보다는 조직문화 등 조직 차원에서 원인이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으므로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관 내규를 현행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3단계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산 유지보수 인력 1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함.
-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2021년 15회)를 운영하여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회 형평적 인력 및 공로우대 근무자로 제한하여 채용함.
- 2019년부터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를 시행함. 무기계약직 연구직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선정 범위를 무기계약직으로 확대하고, 무기계약직 연구직의 교육훈련을 위해 정규직과 통합한 마일리지 적립형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함.
- 비정규직 위촉직의 고용 기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의견수렴 통해 최대 2년간 근무가능 하도록 조치함.
- 2021년 전체 직원수는 36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인원은 오히려 1명이 감소함.

〈미흡한 점〉

-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높음(2021년 365명 중 89명).
-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계획에 현재 시행중인 조치들을 서술하여 당 기관의 향후 계획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였음에도 정부수탁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큰 규모의 비정규직을 운용하고 있는바,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의 상시적 지속적 인력 여부를 검토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을 비롯한 심리적 위축감이 차별적 요소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 효과의 정도

〈우수한 점〉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6명(10~20% 감액)으로 별도정원 4명 신규 채용 완료함.
- 2021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2031년까지 소요재원의 계산한 가운데 35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인력 수급을 도모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실천적 고려의 결과로 판단됨.

〈미흡한 점〉

-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및 자문, 멘토링, 제도개선, 채용심사 등 업무를 개발하여 수행토록하고 있으나 직군별로 구분된 적합 직무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신규채용 재원을 임금피크제 절감액과 인건비 잔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예산 문제를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임금피크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업무 이외에 전문성을 활용하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직군별로 별도의 적합직무를 개발할 필요 있음.
- 신규채용 재원의 조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유함.

■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

〈우수한 점〉

-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및 성범죄 방지 규정, 채용비리 방지 규정을 관련 법령 및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 직무상 정보 활용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의 제한 규정을 제정하여 윤리경영과 관계된 내규를 정비하고 체계화함.

- 내부감사시스템, 클린신고센터, 옴부즈맨제도, 불공정거래방지시스템 등 내부견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채용은 3단계 전형 절차의 전 과정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채용 전후의 전 과정에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인권경영 전담부서(감사실) 지정, 내·외부 위원 동수(각 4인)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지침의 수립,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와 결과 공표 등 인권경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국토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구성하고 연구직과 실무진을 평가자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 법인카드(복지포인트 포함)에서 발생한 포인트 500만원을 위기가정 및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곳에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실적이 우수함.

<미흡한 점>

- 윤리경영 교육은 전 직원 집합교육과 유튜브 중계를 병행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으나 인권경영교육(전 직원 66%, 관리자 80%), 청렴교육(72.8%, 관리자 73%), 장애인식개선교육(전 직원 71%), 아동학대예방교육(전 직원 36%, 관리자 20%) 등에서는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 있음.
- 채용비위 예방교육이 채용담당자 2명에 대해서는 실시되었고, 공개채용 진행 시 면접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채용은 기관 전 부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므로 전 직원 대상 채용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 있음.
- 인트라넷에 감사자료 게시판 신설 운영, 부정청탁 및 갑질, 인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실시, 원장대화방 익명게시판 운영(의견 3건 접수) 등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와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 교육 일부에 전 직원 및 부서장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무평정이나 인사제도와 연동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 있음.
- 또한 전 직원 대상 채용비리 예방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것을 권유함.
- 클린신고센터의 신고가능한 대상을 부조리 신고센터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열거하고, 신고의 편의성 및 관리를 위해 윤리위반 신고센터를 통합하여 원스톱센터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바람.

■ 복리후생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우수한 점>

- 방만경영 개선해설서(지침)상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하여 실적을 제시하였고, 전반적으로 복리후생 기본 항목을 준수하고 있음.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및 채용 노력

<우수한 점>

- 장애인 의무고용률 3.5%로, 연중 상시적으로 기준을 달성함.
- 장애인 제한경쟁채용(4회), 장애인고용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 구인 노력을 함.
- 장애인에 대한 가점 적용에 대한 우대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정규직 연구원 1명과 청년인턴 3명을 채용함.

<미흡한 점>

- 2021년 8월까지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있으나 9월부터는 2명이 이탈하고 있으며 이탈 원인분석 및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채용이나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돋보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랍.

-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등 안정적이지 않은 직군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채용 이외에 장애인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및 채용 노력

〈우수한 점〉

- 2021년 국가유공자 4명을 신규 채용하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6.33%를 달성함.
- 충남보훈동부지청에 8차례 추천의뢰하고 보훈 특별고용(3회)을 통해 3명을 채용하고, 국가유공자 제한경쟁 채용(1회)을 통해 무기계약직 방호원 1명을 채용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조항으로 가점을 적용하여 연구직(부연구위원)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특별채용, 제한경쟁 채용 및 우대조항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추천의뢰를 요청하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을 달성함. 국가유공자를 위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의 노력이 돋보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람.
- 국가유공자 범주를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우호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음.

■ 청년인턴 채용계획 대비 달성도 및 운용의 적정성

〈우수한 점〉

- 연구 4명 및 행정 5명 채용 계획 대비 연구 2명 및 행정 11명을 초과 채용함.
- 청년인턴에 배정된 인건비 및 연구정보활동비는 100% 집행완료하였고, 배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4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적립금(3,00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지도멘토와 감성멘토의 지정 운영, 인턴개인별 맞춤형 진로 및 애로사항 상담 등 인턴에 대한 멘토링,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연구인턴 경력자 1인 및 행정인턴 경력자 3인을 위촉직으로 채용하였고, 재직 중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타기관 취업에 성공함. 취업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노력이 돋보임.

〈미흡한 점〉

- 지도 멘토 및 감성멘토를 지정한 멘토링제를 실시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실적이 뚜렷하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2021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운영 가이드라인(기재부)에 의거, 우수 멘토에게 인사 가점 등 동기부여를 통해 멘티의 조직 적응과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있음.
- 멘토링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활용 등 제도 보완을 통한 노력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

〈우수한 점〉

- 장애인기업물품 구입 비율 4.27%, 중증장애인생산품 비율 2.21% 달성하여 기준을 초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85.24%를 달성함.
-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실적 17.78%, 여성기업 공사 비율 42.89%를 달성함.
-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준수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유지하고 여성기업 물품과 용역 구매 및 여성기업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수한 점>

-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신규채용자 중 여성인력 비중은 55.5%이며, 2020년 신규채용 여성인력 비율이 61.2%에서 2021년 55.5%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신규채용 여성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성별 균형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임.
- 내규를 개정하여 연구본부 내 소규모 팀단위 연구단(3개)에 여성 연구책임자를 임명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 기회를 제고하고 있음.
- 기관 자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설정하여 매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목표를 달성함. 특히 2020년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11.1% 및 고용부 AA 비교대상 그룹의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 15.1%를 고려하여 2021년 여성관리자 고용 목표를 5.5% 상향시킨 16.6%로 설정하고 17%의 실적을 올림.
-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규칙을 개정(21.9.3)하여 소규모 팀 단위 연구단에 여성보직자를 임명하는 등 여성보직자 수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이 2차례에 걸쳐 직원과 부서장 90%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어 임원, 관리자, 직원 모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실적 기준을 초과 달성함(1차 교육 기관장 참여, 전 직원 91.1%, 부서장 100% 교육 이수, 2차 교육 기관장, 전 직원 94.7%, 부서장 100% 교육 이수).

<미흡한 점>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 활용 중장기적 계획이 미비하며, 여성관리자 범주에 소규모 팀 단위 연구책임자를 보직자를 포함하는 등 다소 인위적이고 소극적 조치만 있음.
-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여성관리자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타 기관대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으며, 2021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17.0% 임에도 여성관리자 수 목표를 16.6%로 낮은 수치로 설정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이 없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경력단절여성 채용 노력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 자체의 여성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채용, 승진, 위원회 구성, 보직자 임명 등 인사상 각 단계별로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신규채용, 대체인력채용, 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거나 고용실적관리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여성보직자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인위적인 조치가 아닌 성과와 능력에 기반하여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기대함.
- 정부합동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기획재정부 기관별 여성고용 확대계획,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을 참고하여 기관 자체 여성관리자목표를 설정하되,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및 기관의 다년간 업무추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4대폭력 예방교육에 기관장과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 교육 이수율이 높은 편이며, 추후 성인지교육 등을 포함하여 양성평등 교육 이수를 권고함.

2-2-3. 감사(평가)결과 개선 정도 및 보안관리 정도

■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우수한 점〉

- 전반적으로 외부 감사 공통지적사항에 관해서는 개선이행 완료 실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점이 우수함.
- 비상임감사를 제외한 3인의 감사 전문인력 구성과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청렴 알림제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감사자료 게시판 신설 등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추구한 점이 잘 드러남.
- 협력업체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환류하고자 자체 노력을 한 점이 우수함.
-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월 집행률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수시로 공지하는 노력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의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

- 전 직원 대상 감사교육 실시방식 측면에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메일, 게시판 안내 등 한정적인 비대면 교육으로 편중되어 있고, 교육주제 측면에서도 구성원의 생애주기별로 다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감사교육의 부서별 출석률 차이, 교육내용별 출석률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 감사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개별 지적사항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외부감사 결과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해 경영 및 연구 분야에 긍정적인 환류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램.
- 감사교육 참여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교육내용 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건의함.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실적 및 환류

〈우수한 점〉

- 연구기관 평가 전담반을 편성하고 연구 및 경영분야 외부전문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상시 환류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함. 특히, 경영부분에 있어 성과가 드러남.

- 연구 기획 단계에서 연구결과의 정책적, 학문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인과의 세미나, 토론, 특강 등을 연구원 차원에서 다수 개최하고, 협동연구를 위해 환경, 인프라, 국제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 인력을 활용하도록 내부 연구진들의 전문 연구 모임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우수함.
-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연구과제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고, ISSUE REPORT, 국토탐구생활, 듣는 연구보고서, 청년 크리에이터 운영 등 고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 가동함으로써 시대적 트렌드와의 부합성 차원에서도 우수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대국민 연구결과홍보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연구과제 발굴에서도 여론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주기별 연구윤리 점검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종보고서 발간 전 연구윤리 준수 의무 및 검증체계를 강화하였으나, 연구과제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구윤리점검을 위한 노력을 건의함.

■ 연구기관 보안관리 및 경영정보공시

〈우수한 점〉

-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및 행정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규칙에 의거 정보전략팀의 2인이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정된 인원 2인이 정보보안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함.
- 2021년도 정보화 예산 총액 대비 정보보안 관련 집행액 비율은 20.6%로 평가기준을 충족함.
- 2021년 도입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출장용 노트북 반출대장 작성 및 반납 시 업무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사항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보보안 담당에게 제출하여 확인함.

-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보안적합성 검증 및 절차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HW, SW)등을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 관리번호, 도입 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사이버 위기 대응 실무 메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함.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DDoS 공격, 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함.
- 전 직원의 보안의식 향상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해킹 메일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함.
- 출연연 사이버 관제센터에서 전달받은 12건의 침해사고(시도) 처리요청 내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간 이내에 100% 조치하여 처리함.
- 2021년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시행하여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 229명이 참석하여 참석률 65.8%로 평가기준을 충족함.
- 2021년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 12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검토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완 대책을 수행함.
- 용역사업에 사용된 장비는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을 시행하며,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한 자료에 대한 완전한 회수 및 파기 처리를 수행함.
- 감사접근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접근 계정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 이력 및 결과 저장/보관하며 용역업체의 원격작업 시 원격 접속 기록을 관리하며 정보시스템 일일 점검일지를 운영하고 있음.
- 용역사업과 관련된 관련 근거 및 용역사업에 대한 장비보안관리, 보안위규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보안성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함.
- 총 10개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안점검을 완료함.
- 감사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해 용역업체의 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실시함.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취약점 진단 항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점검이 필요함.
-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이 65.8%임으로 미이수자에 대한 보안교육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의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반출·입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조치 방안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건의함.

